



# 광남일보



<p><b>광주은행-문화실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b> 금융기법 공유·지역현안 공동 대응</p>	<p><b>7</b></p> <p><b>화순, 생활인구 유입 정책 '눈에 띄네'</b> 지난해 3분기 36만명...전남 두번째 체류 인구수</p>	<p><b>8</b></p> <p><b>장흥 '폐교 위기' 작은학교 살려 지방소멸 대응</b> 소멸기금 30억 활용...'농산어촌 유희마을' 조성</p>	<p><b>9</b></p> <p><b>트러트 가수 미스김, 광주소방 홍보대사 됐다</b> 해남 출신...소방정책·안전 캠페인 등 활동</p>
--	---	---	---

주간 제781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음력3월3일)



##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 성료

나주시 빚가람호수공원 일원...학생 등 1000여명 참여

“제21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지난 29일 전남 나주시 빚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남일보와 (사)광남문화체육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광주시, 전남도,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나주시, 광주·전남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전남자원봉사센터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을 비롯한 한 분사 임직원과 시·도민,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관련 화보 10면

또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남옥선 나주시 임업후계자협의회 대표, 송홍근 나주시산림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인사말, 준비운동, 걷기대회, 다양한 공연, 경품 추첨,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강기형 G&G 라인 댄스야구팀, 김미경 한국고교 장구승승장구팀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시·도민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봄날에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영산강 환경경과 캠페인을 위해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나리의 철쭉, 진달래가 만개한 산책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행복한 날들이라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 미복귀 의대생, '무더기 제적 사태'

### 전남대, 제적예정통보서 발송...조선대는 오늘 수도권 '빅5'·충남대 전원 복귀 움직임과 대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광주지역 의대생들이 무더기 제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28일 정오까지 이번 학기 복학신청서 추가 접수 마감하고, 군 입대·질병 등 사유 없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전원에게 제적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전남대는 21일 의대생들의 휴학원

을 해소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복학 신청서 추가 접수를 마감한 전남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을 시작했다. 사전 통지 기간 학생들은 제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상 출석 중이나 단순 실수에 의한 복학 신청 누락 등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교육 당국이 복학 기한 이후 접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복학을 신청한 학생들도 제적 대상으로 분류된다. 올해 전남대 의대 총원은 893명이다. 이중 이번 학기에 등록한 2025학번 163명과 복학생 30여명, 군 입대와 질병 휴학자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추산된다. 조선대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8일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지만, 그 수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는 복학 신청 기한 연장 계획은 아직 없으며, 제적 예정 통보서를 31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대의 경우 의대생 878명 중 신입생 150명을 포함한 189명만 이번 학기에 재학 중이다. 나머지 689명은 휴학 상태이며, 이중 지난해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은 676명으로 파악된다. ▶2면에 계속

## 이번 주엔 尹탄핵심판 선고할까

33일째 평의 중...내달 4·11일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5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현재 가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6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7일이 지났다. 재판관 8명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갖고 그간 증인신문,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가 당초 거론됐던 3월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인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

###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 37.9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붙은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37.92%를 기록했다. 3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결과, 유권자 4만394명 중 1만5316명이 투표에 마쳐 37.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사전투표가 첫 도입된 2014년 이후 담양군수 선거로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율은 21.98%였고, 2018년 제7회 37.79%, 2022년 제8회 38.07%였다. 지난해 제22대 총선 담양군 사전투표율 29.74%보다도 8.18%p 높았다.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 전남에서는 총 4개의 선거가 진행됐다. 담양은 단체장인 군수와 기초의원(라선거구)을 뽑는다. 담양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